‘코로나19’ 여파, 여자축구 · 올림픽팀 · 벤투호 꼬였다

사상 첫 올림픽 본선 노리는 여자축구, 중국→호주 예정 없던 장거리 비행

김학범호, 2차례 평가전 놓고 상대국 한국 경기 꺼려…벤투호도 ‘발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피해가 사회 전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다수가 한 장소에 모일 수밖에 없는 경기장의 특성과 함께 스포츠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사상 초유의 K리그 개막 연기를 결정했고 농구와 배구 등 현재 시즌 중인 실내 스포츠들은 ‘무관중 경기’를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여자축구대표팀과 남자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남자 A대표팀의 중요한 일정이 줄줄이 다가오는 상황인데 ‘코로나19’라는 악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여자축구는 예정에 없던 장거리 비행길에 올라야한다. 아시아축구연맹(AFC)는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플레이오프 2차전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대표팀은 지난 2월3일과 9일 제주 서귀포에서 펼쳐진 올림픽 최종예선 A조 조별리그에서 미얀마와 베트남을 꺾고 조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중국이 호주에 이어 B조 2위를 차지하면서 한국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1차전은 한국의 홈 경기로 진행되며 오는 3월6일 용인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에서 킥오프 된다. 이어 중국 원정으로 2차전이 치러질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장소가 호주로 바뀌었다. 스타디움은 호주 시드니의 캠벨타운 경기장이다. 불안한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다행인 일이나 ‘다른 조건’이 나빠졌다.

일단 장거리 비행이 불가피해졌다. ‘현지 적응’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국이 불리하다. 중국 대표팀은 호주에서 열린 B조 조별리그 참가 후 계속 호주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전력 비교에서 백중세, 객관적으로 중국이 조금은 앞선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한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원정길에 오르게 됐다. 더 큰 타격은 김학범호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은 지난 1월 태국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 도쿄올림픽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계속 상승세 중이라 올림픽에서의 호성적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학범 감독은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을 넘어서겠다”는 자신감까지 보였다.

KFA도 만반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학범 감독은 “3월과 6월에 평가전을 통해 본격적인 도쿄올림픽 준비에 돌입할 것이다. 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3월 평가전 일정부터 꼬였다.

대한축구협회 한 관계자는 “3월에 국내에서 2차례 평가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의치가 않다. 상대국이 한국에서 경기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국대표팀과 경기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경기 장소는 ‘한국이 아닌 곳’을 원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이웃나라 일본이 처한 곤경과 유사하다. 일본은 오는 3월27일 교토에서 남아공과 평가전을 치를 계획이었는데, 남아공이 ‘불안함’을 이유로 거절한 상태다. 공식 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한국 역시 남아공의 일본 평가전 동선과 묶어 평가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방문을 꺼리는 남아공이 한국을 찾을 리는 없었다. 관계자는 “우리도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대표팀

방법은 제3국에서의 평가전을 치르는 것인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기본적으로 상대국을 초청하면서도 한국 대표팀까지 원정길에 오르는 수고로움이나 비용 발생은 둘째 치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대전 장소를 잡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축구협회의 고민은 A대표팀으로도 이어진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A대표팀은 오는 3월26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5차전을 통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예선’을 재개한다. 지난해 12월 EAFF E-1 챔피언십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A매치라 팬들도 갈증을 풀 수 있는 경기다.

여러모로 의미 있는 첫 출발이 되어야할 경기인데 ‘코로나19’가 그때까지 잠잠해지지 않는다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야말로 발목을 잡고 있는 ‘코로나19’다.

‘코로나19 여파’ 광주FC 홈 개막전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프로축구단 광주FC가 3월1일로 예정됐던 홈 개막전을 연기했다.

광주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2020시즌 K리그 개막 잠정 연기 결정에 따라 3월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르려던 홈 개막전도 연기됐다고 25일 밝혔다.

구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광주는 선수단에 대형마트나 카페 등 다중집합장소 출입을 자제하라고 요청했고, 팬들에게도 훈련장 방문 자제를 안내했다.

선수단 숙소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발열여부를 확인한다. 주 3회 정기적으로 소독도 실시한다.

박진섭 광주 감독은 “K리그1 복귀전이 늦어져 아쉽지만 팬들과 선수단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자체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실전감각 유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따.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전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2020시즌 K리그 개막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연맹은 코로나19 여파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추이를 지켜본 후 변경된 리그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파이터’ 추성훈, 1988일 만의 승리 도전한다

28일 싱가포르서 재기전…상대는 이집트 셰리프 모하메드

‘파이터’ 추성훈(45)이 6년 만의 종합격투기 승리에 도전한다.

종합격투기 단체 ‘원 챔피언십‘은 “오는 28일 싱가포르에서 109번째 프라임 이벤트를 연다”며 추성훈과 셰리프 모하메드(이집트)가 메인카드 제3경기(웰터급)로 맞붙는다고 25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6월15일 원 챔피언십 중국 상하이대회 코-메인 이벤트에 출전해 만장일치 판정패 한 추성훈은 259일 만에 종합격투기 재기전을 치른다. 당시 추성훈은 웰터급 타이틀전 경력자 아길란 타니(말레이시아)를 넘지 못했다.

추성훈과 맞붙을 모하메드는 이집트 종합격투기 대회 ‘에볼루션 챔피언십‘ 웰터급 챔피언 출신이다. 종합격투기 9승 중 판정이 한번도 없을 정도로 결정력이 좋은 선수로 평가된다. KO로 6차례, 조르기로 3번 이겼다. 그러나 2017년 원 챔피언십 데뷔 후에는 3연패에 빠졌다.

이번 경기에서 추성훈이 이긴다면 2014년 UFC 일본대회 만장일치 판정승 이후 1988일 만에 종합격투기 대회 승리를 거둔다.

‘유럽투어 준우승’ 조아연

세계랭킹 33위로 2계단 상승

2020년 초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조아연(20 · 볼빅)이 세계랭킹 33위에 올랐다.

조아연은 24일(현지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랭킹포인트 2.44점을 기록, 지난 주 35위에서 2계단 상승한 33위를 마크했다.

조아연은 2020년 초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와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등에서 잇따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LPGA투어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에서는 공동 6위에 올랐고 지난 주 LET 제프 킹 모터스 호주 레이디스 클래식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LPGA투어 대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1위부터 3위는 고진영(25 · 하이트진로), 넬리 코다(미국), 박성현(27 · 솔레어) 순으로 변동이 없었다. 재미교포 다니엘 강은 일본의 하타오카 나사(5위)를 제치고 4위가 됐다.

지난 시즌 LPGA투어 신인왕 이정은6(24 · 대방건설)는 지난 주 9위에서 10위로, 박인비(32 · KB금융그룹)는 11위에서 12위로 각각 순위가 한 계단 하락했다.

6월 말 세계랭킹 기준으로 15위 이내 한국 선수 중 상위 4명에게 부여되는 2020 도쿄올림픽 출전권 경쟁에서는 고진영(1위), 박성현(3위), 김세영(27 · 미래에셋 · 6위), 이정은6(10위) 등이 앞서가고 있다.

프로농구도 무관중 결정

“상황 주시하며 정할 것”

프로농구 잔여 시즌이 당분간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25일 오전 7시 30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및 국가 위기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프로농구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올 시즌 잔여 일정을 현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당분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5일까지 휴식기를 갖는 KBL 정규리그는 26일부터 정상 재개될 계획이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 취소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무관중 경기 진행으로 결정됐다.

이미 여자프로농구(WKBL), 프로배구 V리그(KOVO)가 앞서 무관중 경기를 결정한 상황이다.

KBL은 추후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관중 입장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무관중 경기는 26일 고양 오리온-울산 현대모비스, 인천 전자랜드 -안양 KGC 경기부터 적용되며 프로농구 관계자 이외 일반 관중 입장은 통제된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선수단 자가격리… “예방차원”

‘확진환자와 간접접촉’ 충남도 선수들과 같은 숙소

“보건당국서 자가격리 권고 아냐” …리그 조기 종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강원 삼척시를 방문한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선수단을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25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선수 15명과 감독, 트레이너 등 18명이 23일부터 선수단 숙소 등지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22일 삼척에서 확진환자(21 · 남성)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은 지난 14~22일 강원도 삼척시 삼척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SK핸드볼코리아리그’ 참가를 위해 13일부터 삼척시에 머물렀다.

시 체육회는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삼척 확진환자와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팀과 같은 숙소를 사용한 충남도청 핸드볼팀에서 삼척 확진환자의 접촉자와 마주쳤음을 확인하고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보건당국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코로나19 예방과 보호 차원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리그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